

김보당의 난

무신정변을 진압하려던 꿈이 무너지다

1173년(명종 3) ~ 미상

1 개요

‘김보당의 난’은 1173년(명종 3)에 일어난 사건이다. 무신집권기 초반이었던 이때, 폐위된 국왕 의종(毅宗)을 복위시키고 무신정변(武臣政變)의 주역인 정중부(鄭仲夫)와 이의방(李義方)을 제거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동계병마사(東界兵馬使) 김보당(金甫當)이 난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무신정권에 의해 곧 진압되었고, 사후 처리 과정에서 수많은 문신들이 처형을 당하는 비극을 낳았다.

2 ‘경인년과 계사년의 난’이 낳은 참극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는 ‘경인년과 계사년의 난[庚癸之亂]’이라는 표현이 있다. ‘경인년과 계사년 이래로[庚癸以來]’ 세상이 달라졌다는 내용도 보인다. 대체 경인년과 계사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경인년의 난은 바로 무신정변이다. 무신정변이 벌어진 1170년(의종 24)이 바로 경인년이었기에 이런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다. 정중부 등 왕실 호위부대의 간부들이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이 사건은 고려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진다. 정변의 날과 그 직후 수많은 문신들이 살해를 당하였고, 국왕 의종은 폐위되었다. 정변을 주도한 정중부, 이의방, 이고(李高) 등이 권력을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이들 간의 권력 암투로 서로 죽고 죽이는 참상이 이어졌다. [관련사료](#) 참혹한 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렇다면 3년 후인 계사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정변 세력이 새로 옹립한 국왕이 재위하고 있었던 명종(明宗) 3년이였다. 계사년의 난이라고 지칭되는 일은 바로 이 글의 주제인 ‘김보당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사건이었다. 무신정권을 타도하겠다는 명분으로 일어난 이 거병이 실패로 끝나면서 수많은 문신들이 살해당하였다. 이 시기에 대해 『고려사』에서는 ‘못 문신들을 전부 죽여 버렸다’라고 묘사할 정도였다. [관련사료](#)

사실 이 대목에서 설명하기 어색한 점이 있다. 계사년의 난이라고 지칭되는 일은 바로 이 글의 주제인 ‘김보당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사건이었다. 이 명칭 역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등장한다. 그런데 ‘김보당의 난’은 정변으로 집권한 무신집권자들에 대해 일으킨 난으로, 폐위되어 유배되어 있던 전 국왕 의종을 복위시키려 한 사건이었다. 난의 주체와 목적이 상반되는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경인년과 계사년의 난’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소 어색한 느낌이 있다. 그러나 이미 고려 시대부터 이렇게 묶여 지목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 국왕을 복위시킨다는 것은 현 국왕을 폐위시킨다는 것이니, ‘국왕에 대한 반란’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난’을 ‘난리’라는 의미로 넓게 본다면, 즉 ‘경인년과 계사년의 난리’로 본다면 또 하나의 공통점을 짚을 수 있다. ‘문신들이 대거 학살된 난리’라는 점이다. 뒤에 다시 자세히 적겠지만, 이 시기에 대해 『고려사』에서는 ‘못 문신들을 전부 죽여 버렸다’라고 묘사할 정도였다. [관련사료](#)

물론 이렇게 본다면 ‘김보당의 난’이라는 이름이 주는 뉘앙스와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무신정변에 이어 ‘김보당의 난’, 엄밀히 말해 그 난에 대한 무신집권자들의 보복으로 인하여 고려 조정의 수많은 문신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렇다면 김보당이라는 사람은 누구인데 무신집권자들에게 대해 난을 일으켰던 것일까?

3 명문가 출신의 문신 김보당, 무신의 시대를 맞이하다

김보당은 무신정변 이전에 이미 조정에서 관리로 근무하고 있었다. 아쉽게도 무신정변 이전 시기 김보당의 정치적 경력이나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고려사』에 처음 보이는 그의 관직은 간관(諫官)인 우간의(右諫議)이다. 1171년(명종 1) 9월에 우간의 김보당은 여러 동료 간관들과 함께 무신정변 이전 시기 조정의 중신들을 탄핵하였다. [관련사료](#) 무신정변의 피바람 속에서 무사히 살아남았고, 새로 출범한 조정에서 요직을 맡아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펴려 하였던 것이다. 이때 탄핵의 대상이 된 인물들에는 거물급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의종대의 재상이었던 최윤의(崔允儀)를 비롯하여 무신정변의 주역 이의방의 형인 이준의(李俊儀), 무신들로부터 신망을 받아 많은 문신의 목숨을 구했던 문극겸(文克謙) 등이 그 대상이었다. 김보당과 함께 탄핵을 주도한 인물 중에는 정변의 주요 계기가 되었던 폭행 사건의 피해자이자 [관련사료](#) 정변 후 요직에 올랐던 이소응(李紹膺)도 있었다. 김보당이 상당히 굵직한 정치적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통해 김보당이 무신정권 초기 정국에 협조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렇게 무신정변 뒤의 엄혹한 정국에서 김보당이 요직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집안 배경과 관련지어 이해되고 있다. 김보당은 고려 초기의 명신 김심언(金審言)의 후손으로, 당시 명문가의 하나였던 영광(靈光) 김씨 집안의 일원이었다. 여러 선대들이 과거에 급제한 문신으로 정계에서 활약하였고, 김보당 본인도 간관에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아 과거에 급제하고 문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 무신정변으로 문신들이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고는 하나, 무신들이 문신 없이 자신들끼리만 정치를 할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보당은 가문적 배경과 본인의 능력에 힘입어 정치적 활동을 야심차게 펼치려 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탄핵의 역풍을 맞았다. 명종은 이준의와 문극겸에 대한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준의는 술을 마시고 순검군(巡檢軍)을 동원하여 대궐문 앞에서 간언을 올리는 간관들을 목보였다. 더구나 명종은 이 사건을 듣고 오히려 이준의를 달래고 간관들을 투옥하였다. 급기야 김보당 등은 좌천되고 말았다. [관련사료](#)

4 의종 복위의 기치를 높이다. 그러나...

2년 뒤, 김보당은 동북면병마사 간의대부(東北面兵馬使 諫議大夫)라는 관직을 띠고 다시 사료에 등장한다. 1173년(명종 3) 8월, 동북면병마사로 나가 있던 김보당이 자신의 관할 구역인 동계(東界)에서 군대를 일으켰다. [관련사료](#) 김보당은 정중부와 이의방을 토벌하고 의종을 복위시키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일단 외견상 김보당의 군세는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다. 같은 동계에 파견되어 있었던 동북면지병마사(東北面知兵馬事) 한언국(韓彦國)도 군대를 일으켜 김보당에게 합세하였다. 또 당시 배윤재(裴允材)를 서해도병마사(西海道兵馬使)로 삼아 군을 일으키게 하려 했다고 한다. [관련사료](#) 서북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 행동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구주(龜州) 일대에도 김보당 군의 세력이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사료](#) 그리고 남쪽으로도 손을 써, 장순석(張純錫) 등에게 병력을 동원하게 한 뒤 의종을 거제도에서 구출하여 계림(鷄林), 즉 경주(慶州)로 모시고 나오도록 하였다. 당시 '남쪽이 모두 호응하였다'고 하였으니, 다소의 과장이 들어갔다고 보더라도 김보당에게 동조하는 남쪽 지역이 어느 정도 있었음을 헤아릴 수 있다. [관련사료](#) 그러나 김보당의 군은 허무할 정도로 쉽게 무너졌다. 김보당은 9월에 안북도호부(安北都護府)에서 체포되어 개경으로 압송되어 처형되었다. [관련사료](#)

무엇이 문제였을까. 기본적으로 김보당 군의 수뇌부가 문신들이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또 주요 거점들이 당시 무신집권자들의 연고지였으므로 지역 장악력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종과 김보당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민심도 열렬한 지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경주의 백성들은 정중부가 보낸 조정의 진압군이 내려오자 술선하여 김보당이 파견했던 부하들을 제거하였다. [관련사료](#) 무신집권자였던 정중부와 이의방은 신속하게 김보당 군의 거점 지역으로 병력을 파견하여 제압하였다. [관련사료](#) 무신집권세력의 전면적인 공세로 김보당의 군세는 허망하게 무너졌고, 김보당 본인도 처형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김보당의 죽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큰 비극은 따로 있었다. 일단 경주로 와 있던 의종이 정중부가 보낸 이의민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당했다. 한때 고려의 군주였던 의종은 자신이 총애했던 이의민에게 구타당해 숨졌고, 죽은 뒤에는 시신마저 모욕을 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다. [관련사료](#) 훗날 다시 반(反) 무신정권 세력에 의해 옹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였다고 보인다. 또한, 난이 진압된 후 정중부 등은 문신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에 돌입했다.

심문 과정에서 김보당이 “문신들로서 누가 함께 모의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정중부는 약 열흘 동안 문신들을 학살했다고 한다. [관련사료](#)

5 김보당의 난에 대한 후세의 평가

결과적으로 김보당의 난은 완전한 실패였다. 더구나 자신뿐만 아니라 의종과 수많은 애꿎은 문신들의 죽음까지 야기하였다. 결과를 두고 말하자면 김보당의 난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내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 편찬된 역사서인 『동국통감(東國通鑑)』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평을 달았다. [관련사료](#)

사람을 잘 관찰하는 자는 그가 세운 공(功)의 성취와 실패를 관찰하지 않고, 그가 행하는 일의 옳고 그름과 마음 쓰는 것의 사악하고 올바름을 관찰합니다. 마음이 진실로 옳바르고 일이 진실로 옳다면 비록 공을 이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한 취할 만하니, 김보당 같은 인물이 그런 예입니다. 그가 동남에서 군사를 일으켰을 때 강개하고 발분하여 반란을 일으킨 역적들을 토벌하고 군부(君父)를 구원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으니, 그의 마음씀을 올바르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경직·장순석·유인준의 여러 무리들과 함께 전왕을 받들어 대의(大義)를 일으켰으니, 명분과 의리가 바르고 순하였으며, 일 또한 옳은 데서 출발하였다고 말할 만한 자인데, 불행하게도 패배하여 자신이 죽는 데 이르렀으니, 참으로 애석하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그가 죽음에 임박하여 말한 한마디는 다시 문신들에게 화를 입히게 되어 산 자가 없게 만들었으니,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절개를 온전히 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큰 강령이 이미 율발랐으니, 어떻게 성취와 패배를 가지고 사람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김보당 같은 현명한 자가 오히려 열전(列傳)에 들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에서는 결과는 아쉽지만 김보당의 뜻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느 시대의 무슨 일이든, 동기와 결과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어 평가를 내릴 것인지는 참 어려운 문제이다. 800여 년 전의 비극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여전히 고민할 숙제를 안겨준다.